

訴 제기 업체 늘고, 상인·민변 등 소송 참가

‘지역사회 對 대형마트’ 법정 전면전

광주·전남 지자체 9곳과 영업제한 소송 본격화

대형 마트에 대한 부분 영업제한과 관련 광주·전남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본격화됐다. 중소상공인·시장상인·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재판부에 대거 소송참가신청을 내고 소송 제기한 대형마트도 늘어나 재판은 ‘대형 마트 대 지역사회’ 전면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광주지법 401호에서 열린 개정 조례 관련 첫 공판에서 대형마트 측 변호인들은 지자체의 개정 조례 역시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묵박한 기존 조례에 대한 대형마트의 처분취소 가져본 신청을 지난 7월 광주지법이 받아들이자 일

제히 ‘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으로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개정 조례에 의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에서의 조례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규제 행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날 공판에서 “원고가 개정 조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어긋나며,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피고 측도 이에 대한 법적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측이 기존 광주시 5개 자치구와 목포시 이외에 순천·광양·나주 등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 취소소송을 내면서 대상 지자체는 6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다.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유통 3사에 이어 이마트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브랜드인 에브리데이리테일까지 참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유통업체는 4곳이 됐다.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민변 광주지부는 물론 광주시장 상인연합회, 광주YMCA, 광주시슈퍼마켓연합회, 광주경실련,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광주시지회, 광주여성센터, 봉산·무등시장상인회 관계자 등 무려 27명이 소송참가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와 민변 광주지

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공판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소송에 공동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임선숙 민변 광주지부장은 “법에서는 포괄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법적인 기준만이 강조되면 불리할 수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 매달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최근 정부의 대형마트 관련 규제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몰입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음 재판은 광주시 5개 자치구와 목포시의 경우 오는 12월6일 오후 2시45분, 순천·광양·나주 등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육아휴직 왕따 위자료 2배

광주지법 “새마을금고, 여직원에게 2000만원 지급”

출산한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다녀오자 사실상 강제 퇴직시킨 전남지역 한 새마을금고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이 여직원은 불법적인 인사조치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이사장은 지난해 말 150만원의 벌금까지 졌다.

25일 광주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최근 순모(여·28)씨가 자신의 전 직장인 한 새마을금고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보장의 필요성, 피고가 조직적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병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1000만원만 인정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문씨의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손씨는 이듬해 4월 결혼한 뒤 2009년 12월 중순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마치고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손씨의 책상이 사라졌고 출납 업무에서 창구안내와 총무업무 보조로 변경돼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해야 했다.

“언제쯤 내 자리를 줄 것이냐”는 손씨의 항의에 금고 간부직원은 “여올라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 내놓고 산 지 오래됐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 우울증으로 1주일간 입원치료까지 받은 손씨는 다시 40일간 병가를 쓴 뒤에도 출근을 거부하자 금고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면직시켰다.

재판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손씨를 스스로 퇴직하도록 왕따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상을 치워버리거나 모욕한 것은 부당한 대우였다”고 지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내 일자리 어디에

25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2광주·전남 우수기업 채용박람회’에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행사에는 IBK기업은행과 일자리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우수기업 55개 업체가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치매 아내 요양원 보내기 싫다”

곡성서 70대 부부 음독 자살기도 위독

시골마을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부인과 수발하던 남편이 함께 음독을 시도해 종태에 빠졌다. 이 부부는 음독하기 전 자식에게 전화를 했고 유산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까지 남겨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5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0시50분께 석곡면 한 주택에서 오모(78)씨와 부인 윤모(76)씨가 나란히 누워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이웃에 사는 친척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이웃은 경찰에서 “부모님과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오씨 아들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가봤더니 두 분 모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오씨 부부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위 세척 등을 받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위독한 상태에서 곡성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오씨 부부는 유서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3남 4녀 자식을 위해 금반지 등 패물 보관 장소와 재산 배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아내 윤씨와 약 1년 전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고 치매 증세를 보이자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자식들의 권유를 뿌리친 채 홀로 병시중을 하겠다고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몇 달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당했어도 아내를 지극히 보살펴 왔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늪으면 죽어야...” 현직 판사 막말

재판중 고령 피해자에

40대 중반의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B(여·66)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의 정점은 B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명의자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였다. 그러나 B씨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수차례 바뀌기도 했다.

A판사는 직권으로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늪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양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줬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판사가 재판 도중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건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5명 구속

9명 영장 기각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조직국장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 전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현직 통합진보당 당원은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9

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직책과 역할, 대리투표 횟수 등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과 계획적·조직적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죄질이 나쁘고 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니원침 (8676) 김종두



서기동 구례군수

대법서 무죄 확정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기동(63) 구례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기동은 지난 2008년 8월 사무관 인사에서 승진한 공무원 임모(57)씨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 모 요양원 건물 과정에서 김모(55)씨로부터 48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농촌 들어 고추 흥친 가족절도단

○“농촌을 돌며 고추를 흥친 아버지 아들, 사위가 나란히 경찰서행.

○25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순모(61)씨 등은 지난 8월 10일 밤 11시 30분께 보성군 노동면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 건조중인 고추 36kg(100만 원 상당)을 훔쳐가는 등 최근까지 보성·화순 등지에서 고추 120kg(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손씨 등은 심야에 1트럭을 타고다니며 각자 범행, 망보기 등 역할을 분담해 절도 행위를 벌였으며 흥친 고추는 나주 시장 상인과 부산지역 식당에 판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SCREEN GOLF

두암골프존

두암골프존 파격할인

REAL 18홀 14,000원(연중동일)

오전(평일) 12,000원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골프존 기본형 18홀 12,000원 (연중동일요금)

오전(평일) 10,000원 (12시 티업까지)

- 편안하고쾌적한 최고시설 5개홀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원소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홀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정형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20)4-종-4738호